



■ 한국 첫 금...유도 장성호 일문일답

“지면 은퇴할 각오로 싸웠죠”

“다음 목표는 베이징올림픽 금”

“금메달은 그 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주는 결혼 1주년 선물입니다. 후배에게 경기 전 이번에 지면 은퇴한다고 말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도 욕심이 나네요. 올림픽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3일(한국시간) 새벽 제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스타 장성호(28·수원시청)는 오는 17일로 결혼 1주년 이 되는 아내 김성운(27)에게 금메달을 바친다고 말한 뒤 올림픽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던 장성호는 이시이 사토시(일본)에게 3차례 졌던 걸 설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시이 공략법을 지도해준 안병근 남자 대표팀 감독과 전기영 코치, 김정행 대한유도회 회장, 원정 응원을 온 김용서 수원시청에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은 장성호와 일문일답.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인데.

▲내가 첫 금메달을 땀나게 기쁘다. 부족한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직접 와서 응원했는데.
▲신혼인데도 고생만 시키고 잘해 주지 못한 아내에게 주는 결혼 1주년 선물이다. 그동안 고생에 보상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아내가 14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 홈을 달여 주고 응원석에 기도해준 게 큰 힘이 됐다.

-이시이에게 유독 약했는데.
▲2004년과 지난 해 코리아컵, 올해 프랑스 그랑프리 단체전 등 3번을 이시이에게 모두 졌다. 3번 졌으니 4번 저도 티가 안날 것 같아 되는데도 하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도우며 싸웠다.

이시이는 내가 잡는 것보다 깊고 압박하는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한국에서 많이 준비한 걸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안병근 감독님과 전기영 코치가 자세 잡는 법을 알려줘서 이길 수 있었다.

-다음 목표는.
▲이번에도 지면 은퇴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나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못했던 금메달이 욕심이 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아테네 때 못했던 금메달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박태환 금 향한 역영

3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이쿠아티 센터에서 열린 수영 남자 200m 자유형에 출전한 박태환이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일에 지고 약체 필리핀에 ‘화풀이’



야구

한국, 12-2 콜드승...겨우 체면치레

한국 야구대표팀이 약체 필리핀을 제물로 아시안게임에서 2패 후 첫 승을 신고했다.

김재박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알라얀 구장에서 벌어진 필리핀과 폴란드 3차전에서 이진영(SK)의 3점 홈런과 조동찬(삼성) 이대호(롯데)의 투런포 2방 등 홈런 3발

을 앞세워 12-2,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11월30일 대만에 패해 사실상 금메달 꿈이 좌절된 대표팀은 2일에는 사회인 야구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7-10으로 역전패하면서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기껏해야 동메달권으로 밀렸지만 한국은 이날 필리핀전에 무릎 부상 중인 박진만(삼

성)과 포수 조인성(LG)을 제외하고 베스트 라인업을 기용,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회 이진영의 스티어링포로 승기를 잡은 한국은 2회 이병규(전 LG)의 2타점 3루타 등으로 4점을 보낸 뒤 3, 4회 홈런으로 다시 4점을 추가, 해기를 막았다.

장원삼(현대)이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속아내며 1피안타 1실점(폭투)으로 호투했다. 한국은 4일 오후 7시30분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어백호 답답한 2승



축구

베어백호가 약체 베트남을 꺾고 2연승을 달렸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경기를 펼치며 조 2위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20년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카타르 도하 알 아라비 경기장에서 끝난 도하 아시안게

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초반 이후의 선제골과 종료 직전 김진규의 헤딩골로 베트남을 2-0으로 눌렀다.

2연승을 달린 한국은 6일 오전 바레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면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다.

그러나 같은 조 바레인과 방글라데시를 5-1로 대파, 2승을 올린데다 다득점에서 앞

서 한국이 바레인과 비기면 조 2위로 떨어지게 된다. 베트남은 1차전 상대 방글라데시보다 강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0위의 약체지만 간간히 날카로운 역습으로 한국의 느슨한 수비진을 괴롭혔다.

전반 7분 이후가 갈끔한 오른발 인사이드 슈트로 골문을 깨물었다.

초반엔 대량득점 분위기를 보였지만 추가골이 터지기까진 한참 마음을 졸여야 했다. 한 골차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후반 인저리타임 수비수 김진규가 김두현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꽂아 베어백호의 체면을 살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오늘의 주요 경기

-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준결승 등(15시)
- ▲야구
△한국-태국(19시30분)
- ▲볼링
△남자 2인조 결승(15시) △여자 2인조 결승(23시30분)
- ▲복싱
△남자 48kg 이하급 예선 등 (20시)

- ▲당구
△남자 스누커 복식 예선 등(16시)
- ▲사이클
△여자 개인도로(18시30분)
- ▲축구
△여자 한국-베트남(23시15분)
- ▲체조
△남자 개인전 결승(20시)
- ▲유도
△여자 57kg 이하급 16강전 등(20시)
- ▲조정
△여자 더블스컬 등(15시30분)

- ▲세팍타크로
△여자 한국-인도(18시)
- ▲사격
△남자 50m 소총복사 등(14시)
- ▲수영
△여자 50m 배영 등(16시)
- ▲탁구
△여자 복식 32강전 등(16시)
- ▲테니스
△남자 단체 16강전 등(16시)
- ▲역도
△남자 77kg급 등(16시)